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역설(易說)

서(序)

역이란 변하고 바뀌는 것[變易]이다. 천도(天道)의 변역(變易)은 성(誠)이고, 인도(人道)의 변역(變易)은 중(中)이다. 성(誠)은 늘 한결같고 쉼 없는 이치이고, 중(中)은 변하면서 도(道)를 따르는 의(義)이다. 이것이 역의 체용(體用)이다. 괘효가 그려지기 이전부터 정념 존재했고, 유학의 도가 사라지고 희미해진 뒤에도 추락하지 않았다. 마음 가운데 수렴되어 있지만 안이 없고, 육합(六合)에 가득 차 있지만 밖이 없는 것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게 아래 위로 자리 잡자 사람이 그 가운데 참여하여 삼재(三才)가 되었다.

사람 마음의 본체(本體)는 바로 하늘 이치의 본연(本然)이고, 사람 마음의작용은 바로 하늘 이치의 당연(當然)이다. 성인이거나 어리석은 이거나 차이가 없고, 다만 기품(氣稟)이 고르지 않으므로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며 현명하고 그렇지 않은 구별과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며 수명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천지 가운데서 위대한 조화와 함께 유행하면서 순간순간 옮기고 변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길함과 흉함, 후회함과 인색함이 이 때문에 생겨나고, 삶과 죽음, 처음과 끝이 이 때문에 정해진다. 성인의 마음은 하늘과 사이가 없고, 현인은 그것을 닦아서 길하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어겨서 흉하다. 옛날 복희(伏犧)씨가 우러러 보고 굽어 살펴 음양(陰陽)에는 기우(奇偶)의 상(象)이 있고, 형기를 받아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시작하고 마치며 모이고 흩어지는 것 모두가 상수(象數)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상(象)을 그림으로써 변화를 의탁하여 사람들이길흉을 점쳐 알아서 도를 따르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 상(象)을 이리저리 견주어 보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용마(龍馬)가 하수(河水)에서 나왔다. 등에 지고 있던 도(圖)에 쓰여진 수(數) 역시 기우(奇偶)의 상(象)을 가지고 있어 마음으로 깨달아 드디어 결정하고 그렸다.

하나의 효에서 양의(兩儀)로, 두 효에서 사상(四象)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세 개의 효로 이루어진 팔괘(八卦)를 구성하였다. 다시 세 번 부연하여 여섯 효에 이르러 64괘를 구성하자 삼재의 도와 만사만물의 이치가 갖추어졌다. 양의에서 64괘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하나의 홀수와 하나의 짝수를 서로 변역시켜 완성한 것이므로 그것을 역이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그림만이 있었고 글은 없었다. 주(周) 문왕(文王)과 주공(周公), 공자(孔子)에 이른 뒤에야 글자가 있는 책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주역(周易)』이라 하였다. 「대전(大傳)」에 "하수(河水)에서 도(圖)가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문자가 나와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설명하는 이들이 이를 근거로 '도와 문자가 모두 복희 시대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당시에는 문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문자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가? 다만 그 이치가 일치하므로 함께 말했을 뿐이다.

용마(龍馬)는 용이 하수에서부터 말로 변하여 지상에 나온 것을 가리킨다. 용은 땅 위를 걸어 다닐 수 없으므로 말로 변하였고, 거북은 육지를 다닐 수 있으므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도(龍圖)의 수(數)는 상(常)을 위주로 하면서도 용은 그 바탕을 변화시켰다. 이는 상(常)은 반드시 변화가 수반됨을 의미한다. 구문(龜文)의 수(數)는 변화를 위주로 하면서도 거북은 여전히그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는 변화는 반드시 상(常)에 근본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조화의 오묘함이며 역과 홍범(洪範)이 쓰여지게 된 이유이다.

64괘는 본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복희의 역은 건(乾)을 앞에 곤(坤)을 뒤에 놓아 건(乾)에서 복(復)까지가 한 부분이고 구(姤)에서 곤(坤)까지가 한부분이다. 횡으로 배열된 방도(方圖)와 둥글게 배치된 원도(圓圖)가 모두 이와 같다. 이는 음과 양이 소장(消長)하는 순서이면서 괘를 그린 차례이기도하다. 하(夏)나라의 역은 간(艮)을 앞에 두어 연산(連山)이라 하고, 상(商)나라의 역은 곤(坤)을 앞에 두어 귀장(歸藏)이라 한다. 연산과 귀장의 구체적인 차례는 전하지 않는다.

『주역(周易)』의 상경(上經)은 건(乾)·곤(坤)을 시작으로 하고 감(坎)·이(離)에서 마친다. 이는 하늘과 땅이 자리잡고 해와 달이 교대로 밝은 것을 의미하니, 천도(天道) 유행(流行)의 극치를 표현한다. 하경(下經)은 함(咸)·항(恒)을 시작으로 기제(旣濟)와 미제(未濟)로 마친다. 이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세대를 잇는 것을 의미하니, 인도(人道)가 바뀌고 변하는 지극함을 표현한다. 그러나 상하경 모두 감·이로 끝난다는 점에서는 같다. 천도의 경우 물과 불이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은 생생(生生)의 근본이고, 인도의 경우 물과 불이 서로 구제하는 것도 역시 생생의 근본이다. 끝나면 다시 시작하여 변화가 무궁한 것이 역이 역인 까닭이다.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전적(典籍)을 불살랐지만 이 경전만은 잿더미가 되는 재앙을 면하였다. 이것이 어찌 다만 점의 힘 때문이었겠는가? 천지의 신묘한 도와 귀신의 오묘한 작용이 모두 이 경전에 있으니 '하늘이 유학의 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진나라의 불길인들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한(漢)에서 당(唐)에 이르는 소슬한 일천년 동안 도(圖)는 방술가(方術家)들에게 숨겨지고 이치는 상수(象數)의 말단에 의하여 흐려졌다. 그 책이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식자들이 알 수 없었다.

論語解說(10)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제3편 팔일(八佾)

제22장

공자가 말하였다. "관중은 그릇이 작다."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중은 검소하였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관 씨가 세 사람의 소실을 거느렸고 부하 관원이 두 가지 일을 겸한 사람이 없었으니 어찌 검소하다 할 수가 있으리오."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공자가 말하였다." 임금이 나무를 세워 대문을 막으려면 관 씨 또한 나무를 세워 대문을 막았고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과 수호할 때에 사용하는 술잔 돌려놓은 자리를 마련하면 관 씨 또한 술잔 돌려 놓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관 씨가 예를 알았다고 한다면 누가 예를 몰랐겠소."

[원문]

子曰 管仲之器小哉라 或曰 管仲은 儉乎릿까 曰 管氏有三歸하며 官事를 不攝하니 焉得儉이리오 然則管仲은 知禮乎릿가 曰 邦君이 樹塞門이거늘 管氏亦樹塞門하며 邦君이 爲兩君之好에 有反坫이거늘 管氏亦有反坫하니 管氏而知禮면 孰不知禮리오.

[자왈 관중지기소재라 혹왈 관중은 검호릿까 왈 관씨유삼귀하며 관사를 불섭하니 언득검이리오 연즉관중은 지예호릿가 왈 방군이 수새문이거늘 관씨역수새무하며 방군이 위양군지호에 유반점이거늘 관씨역유반점하니 관씨이지예면 숙불지예리오.]

[이해]

관중[管仲]은 제[齊]나라 대부이오[吏吾] 환공[桓公]보좌해서 패업[霸業]을 이루게 했다. 공자는 관중 역대중국 정치가들 중에 가히 일인자에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치는 잘했지만 인간성 자체는 제후국의 국군[國君]이라야 예법에 걸맞은 일도 태연히 할 정도로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고 비평하고 있다.

제23장

공자가 노나라의 태사[太師]에게 음악에 대해 말하였다. "음악은 그 본질을 알아내는 것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오음[五音]이 일제히 합하여 일어나고 본 가락으로 들어서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같이 되고 곡조가 명료해지며 음색의 여운을 남기면서 끝 맞춤을 이루는 거요."

[원문]

子語魯大師樂曰 樂은 其可知也니 始作에 翕如也하여 從之에 純如也하며 皦如也하며 繹如也하여 以成이니라.

[자어노대사악왈 악은 기가지야니 시작에 흡여야하여 종지에 순여야하며 교여야하며 역여야하여 이성이니라.]

[이해]

공자가 음악의 전문가인 태사에게 음악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는데 태사는 음악을 맞은 하대부로 눈먼 사람에게만 전승 되었다.

제24장

의[儀] 지방의 국경 관리인[封人]이 공자[孔子]를 만나 보기를 청하며 말하였다. "군자들이 이곳에 오면 내가 만나 보지 않은 적이 없었소."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보게 하였더니 공자를 만나고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분들 왜 낙망하십니까? 천하에는 도가 없어진지가 오래되었으니 하늘은 장차 선생님으로 하여금(세상을 바른길로 이끄는)목탁으로 삼을 것이요."

[원문]

儀封人이 請見曰 君子之至於斯也에 吾未嘗不得見也로다 從者見之하되 出曰 二三子는 何患於喪乎리오 天下之無道也久矣라 天將以夫子爲木鐸이시리다.

[의봉인이 청견왈 군자지지어사야에 오미상불득견야로다 종자견지하되 출왈 이삼자는 하환어상호리오 천하지무도야구의라 천장이부자위목탁이시리다.]

[이해]

의[儀]는 위[衛]의 서남쪽 국경지대로 봉인은 국경을 관리하는 벼슬아치다. 공자가 벼슬을 얻지 못하여 뜻을 펼칠 기반이 없어 방황할 때 제자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의[儀] 지방의 봉인이 그가 성인임을 알아보고 후일 세상을 혼란에서 구하는 목탁이 되리라고 찬탄하고 있다.

제25장

공자[孔子]가 소악[韶樂]에 대해 말하였다. "미[未]의 극치를 다 갖추었고 또 선[善]의 극치도 다 갖추었다."무악[舞樂]에 대해 말하기를 "미의 극치는 다 갖췄으나 선의 극치는 다 갖추지 못하였다."

[원문]

子謂韶하시되 盡美矣요 又盡善也라하시고 爲武하시되 盡美矣요 未盡善也라하시다.

[자위소하시되 진미의요 우진선야라하시고 위무하시되 진미의요 미진선야라하시다.]

[이해]

공자가 순임금의 음악과 주나라 무왕의 음악을 비교하여 전통적인 관념의 따른 비평을 가한 대목인데 순임금은 요의 선양을 받아 덕으로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음악도 진선진미할 수 있지만 주무왕은 주왕를 무력으로 공벌하고 천하를 차지하였으므로 진미 하기는 해도 진선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26장

공자가 말하였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의를 차리는데 공경스럽지 않으며. 상사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의 사람됨을 살피겠는가?"

[원문]

子曰 居上不寬하며 爲禮不敬하며 臨喪不哀면 吾何以觀之哉리오.

[자왈 거상불관하며 위예불경하며 임상불애면 오하이관지재리오.]

[이해]

공자가 그 당시 위정자들이 대부분 무례하고 비정하여 본보기가 될 만한 구석이 희박함을 탄식한 대목이다.

제4편 이인(里仁)

이인은 스물여섯 장(二十六章)이다.

제1장

공자가 말하였다. "사는 마을의 인심이 어질어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것이니 인심이 어진 곳을 가려서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할 수 있으랴."

[원문]

子曰 里仁에 爲美하니 擇不處仁이면 焉得知리오.

[자왈 이인에 위미하니 택불처인이면 언득지리오.]

[이해]

옛날 중국에서는 스물다섯 가구를 리라 하였다. 사람에게 환경의 영양이란 매우 지대한 것으로 거처하는 고장의 인심과 풍습이 인후하면 그 곳에 사는 사람 또한 자연스러운 감화를 받아서 훌륭한 품격을 갖추게 된다는 말이다.

제2장

공자가 말하였다. "인자하지 않은 사람은 곤궁한 곳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며 안락함 가운데도 오래 있지 못했지만 인자한 사람은 인자함을 편안케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함을 이롭게 여긴다."

[원문]

子曰 不仁者는 不可以久處約이며 不可以長處樂이니 仁者는 安仁하고 知者는 利仁이니라.

[자왈 불인자는 불가이구처약이며 불가이장처악이니 인자는 안인하고 지자는 이인이니라.]

[이해]

심성이 어질지 모하면 참을성이 없고 난폭 오래 무기력 해지기는 쉬우나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줄 안다는 뜻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48회〉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14)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 23권, 17년(청 강희(康熙) 30년) 윤7월 21일(갑술) 1번째 기사인 「좌의정 심희수(沈喜壽) 등에게 문정 등의 시호를 내리다」는 기사에 "좌의정(左議政) 심희수(沈喜壽)에게 문정(文貞), 우의정(右議政) 허목(許穆)에게 문정(文正), … 증(贈) 찬성(贊成) 권응수(權應銖)에게 충의(忠毅), 안홍국(安弘國)에게 충현(忠顯), 증(贈) 판서(判書) 김우옹(金宇顒)에게 문정(文貞), 조수익(趙壽益)에게 문간(文簡)이라 시호(諡號)를 내렸다. 권응수는 공신(功臣)이므로 시호를 받을 자이고…"라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충의공의 일고(逸稿)와 실기 등을 묶은 「백운재충의공실기(白雲齋忠毅公實記)」 3권이 있으며 그 서문은 정조 때 영의정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시호는 문숙文肅)이 썼다. 배위는 초배가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 순흥 안씨(順興安氏) 훈도(訓導) 도(道)의 따님인데 1녀를 생육하였고 묘소는 경북 영천군 지곡면(知谷面)의 월지촌(月旨村) 뒤 선고 능라군(綾羅君) 묘소 뒤에 계좌(癸坐)로 있다. 재배 증 정경부인 창녕 성씨(昌寧成氏)는 참의 덕룡(德龍)의 따님인데 명종 17년, 1562년 임술에 출생하여 인조 8년, 1630년 경오 9월 9일에 졸하니 수는 69세이고 1남을 생육하였으며 묘소는 영천군 신녕면 갑현(新寧面甲峴)의 화동(花洞) 응봉(鷹峰) 아래 오좌(午坐)로 있다. 측실 문화 유씨(文化柳氏)는 영(泳)의 딸인데 묘소는 영천 신녕면 중리(中里) 초전동(草田洞) 뒤에 손좌(巽坐)로 있다.

후세에 충의공에 관한 문헌 기록으로는 「영천복성기(永川復城記)」가 있는데 정담(鄭湛)이 지었고, 공의 「행장行狀」은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을 호종하고, 청원사·접반관·한성판윤·병조·이조판서와 4도(道) 도체찰사(都體察使)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 뒤이어 31세에 문형으로 예문관·홍문관 양관 대제학, 42세에 영의정, 영중추부사, 진주사, 시호는 문익文翼)을 도와 실무를 담당하고, 정언과 지제고, 동부·좌승지와 성균관 대사성, 대사헌, 호조·공조·예조·이조판서, 판돈녕부·의금부사 및 호성공신 2등에 책록 되었던 연원군(延原君) 해고(海皐) 이광정(李光庭, 1552-1627, 뒤에 보국숭록대부, 부원군)이 지었다.

「시장諡狀」은 숙종 16년(1690년) 3월 가선대부 행 사간원 대사간 겸 동지경연사·예문관 제학(提學) 하곡(霞谷) 권유(權愈, 1633-1704, 후일에 문형文衡;대제학과 지경연사가 되었다)가 지었다. 「시장」에는 충의공의 모습과 지행(知行) 및 공업(功業)을 기록한 글에서 "공의 수염이 아름답고 미간(眉間)이 넓었으며 정신이 맑고 사람을 잘 움직였다. 그리고 비록 많은 무리의 대오 가운데서 서 있더라도 쇄연(灑然;물을 뿌린 듯 깨끗하게)히 드러나 보이게 되니 가히 예사로운 선비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책훈(策勳)된 사람들의 화상(畵像)을 그리기에 이르러서는 …" 등은 앞서 충의공을 연재하면서 기록한대로, 선조 임금도 차단하시었던 바이다. 또한 "공의 모습이 괴위(魁偉:魁傑 우두머리 수령과 같고 훌륭한 모습)하고 기이한 기운을 타고 났으며 지행(知行)이 있어 비록 머리를 남에게 숙이는 일은 없었으나 문학(文學:글과 학문)을 다스리고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기며 그 길례(吉禮)와 흉례(凶禮)를 받드는 바가 곡진한 예를 다 닦은 것이어서 효로써 이름난 것과 그 자질과 행동은 공에게 쉽게 미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미 허락한 것은 신의로 지키며 죽고 사는 것과 여유 있고 급한 것으로써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대의로써 행하고 다스려 서니 고을에 사는 식자들이 따르고 복종하여 마지않았다. 남쪽 왜구(倭寇)의 난이 일어나기에 이르러서는 들과 산림에서 기의(起義)하여 오로지 대의로써 장사들을 맞아들이니 장사들이 다투어 내부(來附)하였다. 이에 공은 여러 의병장들로 하여금 힘써 각기 적재적소의 임무를 맡게 하여 한 두 차례 싸움에 의열(義烈)이 온 나라에 드러나고 적과 더불어 싸움에는 문득 스스로 당하되 비록 탄환과 칼날이 앞뒤에서 닥쳐도 의기가 자여(自如;몸소 자연히 같게)하여 더욱 싸움에 힘쓰니 군중(軍中)이 모두 공의 용기에 감복하였다. 오직 공이 분발함에 모두가 뒤따라 진격하되 감히 물러서지 않으니, 이로써 당적 할 바가 없게 되어 그 예봉이 꺾이지 않고 견강(堅强)한 병사가 함몰되지 아니하여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길(一路)로 왜적을 물리치고, 큰 공훈을 세워 맹부(盟府;공신들이 회맹한 곳)에 훌륭한 인물로 들어갔으니, 충성으로 벼슬함에 심중하였고 용맹에도 심중했을 따름이라 … "라고 기록하였다.

「묘갈명」은 조선 후기 성리학의 대학자 수암(遂庵) 문순공(文純)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제자로서 특출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대사헌, 지돈녕부사, 공조판서 등을 지낸 병계(屛溪) 문헌공(文獻) 윤봉구(尹鳳九)가 지었고, 「신도비명」은 예문관·홍문관 대제학 겸 지성균관사 뇌연(雷淵) 문청(文淸) 남유용(南有容)이 지었으며, 그리고 「영천복성비명」은 순조 년 간 14년간 재상으로 있었던 영의정 사영(思穎) 문헌공 남공철(南公轍)이 지었다.

〈끝〉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 念念要如臨戰日(염염요여임전일)하고 心心常似過橋時(심심상사과교시)니라.

해설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싸움터에 나아갔을 때와 같이하고 마음은 언제나 다리를 건너는 때와 같이 조심해야 하느니라."

○ 懼法朝朝樂(구법조조락)이요 欺公日日憂(기공일일우)니라.

해설: "법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즐거울 것이요, 나라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되느니라."

○ 朱文公이 曰(주문공이 왈) 守口如甁(수구여병)하고 防意如城(방의여성)하라.

해설: 주문공이 말하기를, "입을 지키는 것은 병과 같이 하고 뜻을 막기를 성을 지키는 것같이 하라."고 하셨다.

참고: 주문공(朱文公)은 남송(南宋) 때의 대유학자인 주자(朱子)를 일컬으며 이름은 희(喜), 자는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庵)이다. 성리학(性理學)을 대성시켰으며 이를 주자학(朱子學) 이라고 한다.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 등을 지었다.

○ 心不負人(심불부인)이면 面無慙色(면무참색)이니라.

해설: "마음이 남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느니라."

○ 人無百歲人(인무백세인)이나 枉作千年計(왕작천년계)니라.

해설: "사람은 백살을 사는 사람이 없건만 부질없이 천년의 계획을 세우느니라."

참고: 念..생각염, 要..요긴할요, 臨..임할임, 戰..싸울전, 橋..다리교, 懼..두려울구,

條..아침조, 甁..병 병, 城..재성, 防..막을 방, 負..질부, 저버릴부, 慙..부끄러울 참,

歲..해 세, 枉..굽을 왕, 作..지을 작, 計..계교 계, 셀 계.

○ 寇萊公六悔銘에 云(구래공육회명에 운), 官行私曲失時悔(관행사곡실시회)요 富不儉用貧時悔(부불검용빈시회)요 藝不小學過時悔(예불소학과시회)요 見事不學用時懷(견사불학용시회)요, 醉後狂言醒時悔(취후광언성시회)요 安不將息病時悔(안부장식병시회)니라.

해설: 구래공이 육회명(六悔銘)에 이르기를,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돈이 많을 때에 아껴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게 되고, 재주를 믿고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게 되고, 사물(事物)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몸이 건강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니라."고 하였다.

참고: 구래공(寇萊公)은 북송 진종 때의 재상으로 성은 구(寇), 이름안 준(準), 자는 평중(平仲)으로 요나라가 친입했을 때 이를 잘 수습한 공으로 내국공(萊國公)에 봉해졌기 때문에 "구래공(寇萊公)"이라 불리워졌다.

○ 益智書에 云(익지서에 운) 寧無事而家貧(영무사이가빈)이언정 莫有事而家富(막유사이가부)요 寧無事而住茅屋(영무사이주모옥)이언정 不有事而住金屋(불유사이주금옥)이요 寧無病而食麤飯(영무병이식추반)이언정 不有病而服良藥(불유병이복양약)이니라.

해설: (익지서)에 이르기를,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집이 부자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초가집에 살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니라."고 하셨다.

○ 心安茅屋穩(심안모옥온)이오 性定菜羹香(성정채갱향)이니라.

해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안온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로우니라."

참고: 寇..도둑 구, 萊..쑥 래, 悔..뉘우칠 회, 銘..새길 명, 藝..재주 예, 醉..취할 취, 狂..미칠 광, 智..슬기 지, 寧..편안 녕, 住..살 주, 茅..띠 모, 屋..집옥, 病..병들 병, 麤..거칠 추, 飯..밥 반, 服..옷 복, 藥..약 약, 穩..편안할 온, 性..성품 성, 菜..나물 채, 羹..국 갱, 香..향기 향.

○ 景行錄에 云(경행록에 운) 責人者(책인자)는 不全交(부전교)요 自恕者(자서자)는 不改 過(불개과)니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을 꾸짖는 자는 사귐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자기를 용서 하는 자는 허물을 고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 夙興夜寐(숙흥야매)하여 所思忠孝者(소사충효자)는 人不知(인부지)나 天必知之(천필지지)요 飽食暖衣(포식난의)하여 怡然自衛者(이연자위자)는 身雖安(신수안)이나 其如子孫(기여자손)에 何(하)오.

해설: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이 깊어 잠들 때까지 늘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자는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늘이 반드시 알 것이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서 안락하게 제몸만 보호하는 자는 몸은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에게는 어찌 할 것이요?"

참고: 責..꾸짖을 책, 恕..용서 서, 改..고칠 개, 全..온전 전, 夙..일찍 숙, 興..흥할흥, 일어날 흥, 飽..배부를 포, 暖..따스할 난, 怡..화할 이, 衛..호위할 위, 交..사귈 교, 벗 교, 衣..옷 의, 입을 의.